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8호 [루게 제23270호] 주제99 (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진풍경을 벌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가슴깊이 새기고 외교단사업국 산하단위 부원 리광혁은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물자를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장 박영숙은 조국기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살라는 일념안고 군인건설자들을 성의껏 원호하였으며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 지명된 김예란도 돌격대원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서 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자각한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정혜숙은 여러차례에 걸친 지원양면옥 로동자들인 최광희, 유급란은 돌격대에 탄원한 동대구역공업종합사점 로동자 윤길순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지원사업도 잘하고있으며 평양면옥 로동자들인 최광희, 유급란은 조성어린 원호품들을 가지고 건설장을 찾아 군인들을 고무해주었다.

모란식료공장 로동자 리옥진은 혁명과업수행에 헌신하면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의 영예를 떨쳐가는 군인

들을 성의껏 원호하였으며 청천리관 로동자 리영희도 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있다.

발전소건설속도를 높이는 데서 건설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애국복합미생물센터 로동자 서원실은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발전소건설자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사기자

이런 판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회의의 중요성은 더 말할지 않아도 자명하다.

민주공화국 정당한 무무바주의 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조선로동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로동당이 걸어온 자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조선인민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혁명적당건설사에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대표회의에 접한 국제사회계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정병들, 로동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정일동지께서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커다란 감동속에 접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진보적인사들은 그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경의를 표하고있다고 언급하고 조선로동당 대표회의는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는 무고하고 확언하였다.

이런 판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회의의 중요성은 더 말할지 않아도 자명하다.

민주공화국 정당한 무무바주의 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조선로동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로동당이 걸어온 자

국제사회계는 성명에서 김정일동지께서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커다란 감동속에 접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진보적인사들은 그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경의를 표하고있다고 언급하고 조선로동당 대표회의는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는 무고하고 확언하였다.

이런 판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회의의 중요성은 더 말할지 않아도 자명하다.

민주공화국 정당한 무무바주의 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조선로동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로동당이 걸어온 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 후의 고전적으로 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블레전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리운 (三, 二)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다》를 로씨야의 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10월 17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의 요지를 최근 베루 김일성주요연구소에서 블레전에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리운 (三, 二)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다》를 로씨야의 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10월 17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안고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자

올해전투의 성과적결속으로 불리일으키는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정치사업 대고조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중앙위원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 대고조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훌륭하게 개건되는 남새가공기지 평양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고 맛있다며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같은 사랑에 의하여 애국남새가공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있다.

어머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평양시 사동구역의 4만 5천여명이 달하는 부지면적에 현대적으로 개건되는 애국남새가공공장은 절임장과 저장고, 사무실과 락아소, 후방시설들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생산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화되어 생산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마감단계에서 현대적으로 개건되고있는 수천(능력의 애국남새가공공장은 통배추김

산되는 남새가공품들의 질적수준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사는 첫시작부터 수도시민들의 관심속에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있던 생산건물을 개건하고 식료공화상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설비들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한다는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다. 대성구역련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생산건물벽체까지, 벽체미장과 방일불기 등을 리듬적으로 개건하여 갔다. 일군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긴장하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큰 힘을 쏟고있다. 시장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일군들이 화물자동차를 타고 운전사들과 함께 세멘트와 골재들을 원만히 보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건축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현대적인 가공설비생산물 빨리 따라세워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데 맞게 시장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그들을 불리이켜 현대적인 가공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남알렬기성과 계속 확대 서해벌방 능촌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를 받들고 총공작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라 올해전투를 승리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년말까지 최후돌격전을 벌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대고조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고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올해전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전후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도안의 공장, 광산들, 대규모간자산업 건설과 해산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받들어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투적인 목표, 과감한 실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개공사와 다리건설, 강하천바닥파기와 정리, 도로포장공사와 용벽공사, 거리와 마을정리 등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인 목표를 제정한 국토관리구상에서는 국토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뜨거운 향토애, 조국애로 가슴을 끓이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기사업을 짜고들었다.

성에서는 우선 단계별가치를 국토관리사업에 맞게 노력과 실비, 자재를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다.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현지에 집중시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불리 일으키도록 하였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살며 일하는 고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자강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과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도로포장과 기술개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투적투쟁을 현지에 전개한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명백하게 세우고 도로포장과 기술개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로포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도로포장공사과제는 방대하였지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고 자체 보장사업을 앞세웠다. 다리건설이 펼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모든 공정에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다리보수공사를 맡은 근로자들은 절을 찾자리에 놓고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개천시, 안주시,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근로자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군들은 설계를 앞세우며 기초공사와 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강바닥파기와 작전을 펼친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계수단들과 운수수단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은천군과 평성시,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롯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근로자들이 강하천정리에서 본래를 보였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는 인민들의 투쟁을 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들의 투쟁을 발동하는 것은 인민들의 투쟁을 발동하는 것이다.》

은 나라도 나무모를 재단식으로 많이 키워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는 데 필요한 나무모를 원림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은 나라도 나무모를 재단식으로 많이 키워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는 데 필요한 나무모를 원림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선진적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여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은천군의 하천정리에 품을 들인 보람

은천군의 하천정리에 품을 들인 보람...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benefits and progress of the river reclamation work in Euncheon.)

뜨거운 향토애가 안아온 새 모습

회양군애서

회양군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양군애서

회양군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양군애서

회양군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양군애서

회양군애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향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구환경과 학부는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Text continues describing the activities and goals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다음해농사차비계획에 따라 논가을갈이를 신속하게 내밀고있다. —함주군 동양협동농장에서— (조선중앙통신)

주제체육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평양체육관에 백두산3대장군의 체육부문 령도사적교양관들을 새로 전시

최근 체육성에서 평양체육관에 백두산3대장군의 체육부문 령도사적교양관들을 새로 전시하여 우리 체육인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정신과 자부심,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난다.》 평양체육관의 1층 홀에 전시된 백두산3대장군의 체육부문 령도사적교양관들은 우리 체육인들과 경제에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제 34 (1945)년부터 주제 98 (2009)년까지의 기간에 체육사업을 지도해주시고 주요업무를 보여주는 사관과 주제 체육발전의 세시대를 열어놓으신 승리의 령도를 마려해주시고 절세의 위인들의 빛나는 령도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시는 11개 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 2, 3관들에서는 해방직후 새 조선의 체육이 나아갈 길을 활기차게 밝혀주시고 혁명시대 영도하시였을뿐 아니라 체육사업에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온 나라에 타병자는 친리대리고 불결이 체육분야에서도 비약의 폭풍을 안아오도록 절을 절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불바다에서 주제체육의 혁명적

정신을 마련하시고 해방직후 체육을 나라의 희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주제 34 (1945)년 11월 1일 모든 체육인들을 묶어세우는 북조선체육동맹을 무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새 민주조선의 약동하는 기상과 활력을 시위하며 성장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의 체육은 인민의 기쁨으로, 나라의 자랑으로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첫 체육대회와 성대히 진행되고 인민체력강화제가 나왔으며 체육활동이 제정되어 체육을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승리한 조국의 태평을 내다본 신 경에하는 수령님의 강철의 담력과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수많은 체육인들이 불비손아지는 전호가에서 체육훈련장으로 소환되는 전제없는 화폭이 펼쳐졌으며 주제체육은 전쟁의 거점한 모퉁이에서도 민족의 기상을 과시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선행한 체육발전정책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위대한 주제사상이 밝혀준 승리의 한걸음이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였다. 국제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에게 불결의 투쟁정신과 주제 체육전법을 심어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은 우리 체육인들이 추수와 목숨, 속도비상과 배구 등 많은 체육종목에서 친리대리고 선의 기상을 펼치는 자랑한 국제경기상과들을 편이 이룩할수 있게 한 무비의 힘의 원천이었다.

제 4관에서는 대종체육발전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고있다.

해방직후 새 조선의 체육을 민주조선을 건설할 혁명적 건국투쟁을 위하여 우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킬 위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대중체육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우리 인민을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힘 있는 존재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나가시였다.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라》라는 위대한 현신의 나날들속에 내 조국에 주제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진기가 펼쳐지고 축구, 마라톤, 사격, 권투, 탁구, 유술, 럭비, 체조를 비롯한 상징성종목, 승산종목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경기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기는 혁혁한 성과들이 마련되고 우리 체육인들의 값있는 삶이 꽃피었음을 교양관들은 생생한 사실자료들로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집단체조창작집단을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혁명의 년대들을 빛나게 수놓아온 주제 체육이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떨치며 더욱 눈신 발전의 길을 걸은 자랑한 모습에 대하여 감동깊이 돌아보게 된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전진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신군사상을 체육부문에 구현하시어 주제체육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주셨다.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체육단체로 조직해주시고 주제의 체육경쟁전법도 밝혀주시며 인민군체육인들이 언제나 앞장에서 달리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신군학명령도의 장교님 버니신 속에서도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체육경쟁제도 몸소 보아주시면서 새기와 새기를 이어 주제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그이께서 바쳐가신 그 위대한 현신의 나날들속에 내 조국에 주제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진기가 펼쳐지고 축구, 마라톤, 사격, 권투, 탁구, 유술, 럭비, 체조를 비롯한 상징성종목, 승산종목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경기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기는 혁혁한 성과들이 마련되고 우리 체육인들의 값있는 삶이 꽃피었음을 교양관들은 생생한 사실자료들로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집단체조창작집단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날의 사회주의건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면서 민족적형식으로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를 더 잘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잘 살려나아가 하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날의 사회주의건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면서 민족적형식으로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를 더 잘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잘 살려나아가 하겠읍니다.》

제 8차 전국조선운동선수대회에서

민족의 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



다함없이 열의를 높이고 주체적정신으로 선전하고 있다. (본사기자 촬영)

공화국내각에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연 회 마 련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한 우리 남자축구선수들을 위하여 13일 육류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리태남내각부총리, 박명철체육장,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체육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태남내각부총리가 연설하였다. 그는 공화국내각의 이름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축구의 위력을 보여준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깊은 관심을 돌려고계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인민적 경기를 열어보시고 우리 축구선수들의 경기들도 몸소 보아주시며 체육사업에서 언제나 깊은 뜻을 가져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는 역사적인 당대표회정신을 발고추는 열을 받았으며 민족적 결속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전제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들이 당의 주제적인 체육사업과 방침을 받들고 우리의 축구기술과 전술체계를 더욱 완성하며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축구의 밝은 앞날을 떠메고 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주당 강남권선수는 담사에서 조선축구경기마다에서 사상적인 투쟁, 속도전, 기술전을 벌려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선진사적 체육인으로서의 의의를 다할 것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나라 팀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경기 승자전단계에 진출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팀이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리그전 마지막경기에서 오르단림을 이겼다. 13일 우리 나라 팀과 오르단림사이의 경기에서 진행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 선수들은 경주도성을 취고 상대방향을 걷어내며 현상적인 문전돌입으로 통쾌하게 두팔을 넣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오르단림을 3:0으로 완승하고 조에서 1위를 함으로써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경기 승자전단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중국 광주에서 개막

【평양 1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가 12일 중국 광둥성 광주시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은 광둥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중국의 온가보 국무원총리, 아시아올림픽리사회의 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의 고위인사들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45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군악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주악하는 속에 중국국가도 연주되었으며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어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단은 랑후체육공회기구를 휘날리며 들어서자 장대에서는 우렁찬 환호가 터져올랐다.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올림픽리사회의 위원장이 개막식에서 연설하였다. 온가보 국무원총리가 제16

성황리에 진행된 제29차 운이상음악회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제29차 운이상음악회는 주로 운이상선생의 창작작품의 후반기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과 현악 4중주 제6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공간》, 현을 위한 《운산》 등은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로서의 그의 독특한 창작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운이상선생의 제29차 운이상선생의 운이상선생이 남긴 우수한 음악작품들을 훌륭히 연주형상함으로써 우리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었으며 선생이 남긴 음악작품들이 민족의 체로 길이 전해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제29차 운이상선생의 운이상선생이 남긴 우수한 음악작품들을 훌륭히 연주형상함으로써 우리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었으며 선생이 남긴 음악작품들이 민족의 체로 길이 전해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운이상선생의 제29차 운이상선생의 운이상선생이 남긴 우수한 음악작품들을 훌륭히 연주형상함으로써 우리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었으며 선생이 남긴 음악작품들이 민족의 체로 길이 전해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운이상선생의 제29차 운이상선생의 운이상선생이 남긴 우수한 음악작품들을 훌륭히 연주형상함으로써 우리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었으며 선생이 남긴 음악작품들이 민족의 체로 길이 전해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철산군 선주협동농장 일군들과 혁명적열정과 광만에 넘쳐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철산군 선주협동농장 일군들과 혁명적열정과 광만에 넘쳐 활발히 벌려버린 집단의 단합력을 높일려고 애써왔다. 최근에도 농사일이 성교를 이룩한 기세로 농정선진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산군 선주협동농장 일군들과 혁명적열정과 광만에 넘쳐 활발히 벌려버린 집단의 단합력을 높일려고 애써왔다. 최근에도 농사일이 성교를 이룩한 기세로 농정선진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산군 선주협동농장 일군들과 혁명적열정과 광만에 넘쳐 활발히 벌려버린 집단의 단합력을 높일려고 애써왔다. 최근에도 농사일이 성교를 이룩한 기세로 농정선진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종합대학 교수일행 귀국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의 스탠포드종합대학 교수 일행이 1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포항구역 청소년체육학교 일군들과 종업원들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포항구역 청소년체육학교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선사업에 열심있게 노력하고 있다. 학교사업에 열심하면서 그는 선수후비육성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가 튼튼한 물질적조건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학교에서는 교수훈련일에만 치우치면서 높여지고있는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의 열의에 맞게 조건보장사업을 우등한 수준에서 따라세우지 못하고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선철동흥은 자제의 힘으로 물질적조건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토포 크게 이룬바를 자랑하였다.

조선사회기간에 우수한 계 평가된 제품들에 대한

조선사회기간에 우수한 계 평가된 제품들에 대한 본보기출연과 조선 옷실계와 가공방법에 대한 강의, 기술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보편 불수품 우수한 민족옷 차림풍습과 함께 우리 민족이 애로부러 지고있는 뛰어난 슬기와 재능,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자랑해지는 조선옷에 대한 궁지와 후방기업을 같이 간직하게 하는 전시회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민족옷은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고, 특히 여성들이 입는 민족의 기상은 아름다워도 더불어 깊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전시회 제품 하나하나에 어려있었다.

조선사회기간에 우수한 계 평가된 제품들에 대한 본보기출연과 조선 옷실계와 가공방법에 대한 강의, 기술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보편 불수품 우수한 민족옷 차림풍습과 함께 우리 민족이 애로부러 지고있는 뛰어난 슬기와 재능,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자랑해지는 조선옷에 대한 궁지와 후방기업을 같이 간직하게 하는 전시회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민족옷은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고, 특히 여성들이 입는 민족의 기상은 아름다워도 더불어 깊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전시회 제품 하나하나에 어려있었다.

조선사회기간에 우수한 계 평가된 제품들에 대한 본보기출연과 조선 옷실계와 가공방법에 대한 강의, 기술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보편 불수품 우수한 민족옷 차림풍습과 함께 우리 민족이 애로부러 지고있는 뛰어난 슬기와 재능,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자랑해지는 조선옷에 대한 궁지와 후방기업을 같이 간직하게 하는 전시회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민족옷은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고, 특히 여성들이 입는 민족의 기상은 아름다워도 더불어 깊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전시회 제품 하나하나에 어려있었다.



실험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실력있는 기술인재들로 준비시키고있다. (명당공업대학에서) 리진명 찍음

주목되는 비록스연직접제련기술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비록스연직접제련기술은 열정적 유체 금속을 거치지 않고 직접로 장입하여 산소를 불어넣어 정광속의 리용이 될 때 나오는 열을 주로리 용하여 연을 제련하는 방법이다. 현재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과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을 발전시키고있는 것이다. 이 제련법이 높은 열을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보다 2~3배 높고, 전력소비가 70%정도 적고, 폐생기는 별로 순간적으로 산화원한 다음 전열로 보충가공하는 전열에 넘겨 환원원하는 방법이다. 소결-용광로법에 비하여 에너지소비비가 약 40%, 기본투자 10%정도 적고 여러가지 유가금속들을 동시에 녹여내며 2만t이상의 대규모생산에 알맞다고 한다. 또한 소규모생산에 알맞은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을 발전시키고있는 것이다. 이 제련법이 높은 열을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보다 2~3배 높고, 전력소비가 70%정도 적고, 폐생기는 별로 순간적으로 산화원한 다음 전열로 보충가공하는 전열에 넘겨 환원원하는 방법이다. 소결-용광로법에 비하여 에너지소비비가 약 40%, 기본투자 10%정도 적고 여러가지 유가금속들을 동시에 녹여내며 2만t이상의 대규모생산에 알맞다고 한다. 또한 소규모생산에 알맞은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을 발전시키고있는 것이다. 이 제련법이 높은 열을 산소투입식전기용련법보다 2~3배 높고, 전력소비가 70%정도 적고, 폐생기는 별로 순간적으로 산화원한 다음 전열로 보충가공하는 전열에 넘겨 환원원하는 방법이다.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조국통일이 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의 기치밑에 민족분렬의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진리성과 생명력을 심장으로 꿰찰하고있는 우리 겨레는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리행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시대적요구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장이다. 북남선언들에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되어있다.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 리행하는 투쟁을 떠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이 필사적인 할수록, 반통일책동을 우선 해지던 질수록 북남선언들의 가치를 높여 추구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용감 떨쳐나서야 한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북남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우리민족끼리념에 충실한다는 것은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없이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때에만 민족의 화와 단합, 협력은 도모해나가는 애국 위업이다. 민족의 운명이 결된 조국통일문제를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민족발전의 합법적과정이며 력사의 순리이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국통일도, 민족의 무궁번영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자주정신을 기초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6. 15 위업은 필불불배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확고한 우리민족끼리념에 충실하고자 하여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곧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역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는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있을수 없고 도전은 있어도 좌절은 있을수 없다. 해외의 온 겨레가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나갈 때 6. 15공동선언의 진전은 힘있게 추동될 것일것이며 조국통일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당과와 계층, 지역과 소속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민족끼리 리념으로 굳게 단합하여 우리민족끼리성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며 6. 15위업수행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외세의 사대미국적인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6. 15 통일시대는 민족공조의 시대이다. 민족공조의 실현은 곧 민족단합이며 조국통일이다.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지극히 잘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수 있다. 북남관계를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공조의 관제, 단합의 관제에 만들어야 한다.

민족공조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을 동반한다. 북과 남, 해외가 연대협력을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저지, 분쇄하여야 한다.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제로 되살리고 민족공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자주통일문제를 힘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해내외의 연대협합에 있다.

반전쟁화수호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전쟁화수호투쟁은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인 것이다.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다. 평화와 전쟁은 이분법적이지 않다. 평화와 전쟁의 존재는 상대적이다. 전쟁이 있어야 평화의 진리는 있을수 없다. 평화는 전쟁의 승리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는 없는 것이다. 전쟁이 없다면 평화는 있을수 없다. 평화는 전쟁의 승리이다.

나라의 평화는 그것을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과 방화책동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하기 위한 민족적 투쟁대오에 합류해나서는것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평화의 광풍을 반전쟁화수호투쟁의 거센 열풍으로 제압해나가는 것이다. 반전쟁화수호투쟁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따로 없으며 리명에서 박수를 치거나 관망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 침략자와 대결노가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토에서 통일시대로 살기를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전쟁화수호투쟁에 나서야 한다. 온 민족이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단결하여 미국과 민족반역세력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을 짓부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때 그 힘은 무적이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외세의 선위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이되는 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자주통일, 평화변역으로 향한 우리 겨레의 전진외의 길은 없이 있다. 평화와 전쟁의 존재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평화와 전쟁의 존재는 상대적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는 없는 것이다. 전쟁이 없다면 평화는 있을수 없다. 평화는 전쟁의 승리이다.

우리의 민족의 정리는 온통 애국위업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하기 위한 민족적 투쟁대오에 합류해나서는것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미국이 여기에 투쟁의 불길

«남북공동선언은 민족도 하나, 운명도 하나, 소원도 하나임을 세상에 알리는 력사의 서곡이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경륜을 발하여 우리 민족끼리 어깨걸고 나간다면 아무리 두렵게 열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마련하신 6. 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길에서 한시도 내리우지 말아야 할 불변의 기치이다. 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이것은 지나고 나날들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 이남민중은 통일의 맹수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가져주신 6. 15 공동선언을 틈틈이 틀어쥐고 조국통일문제를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역사와 후대들앞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전쟁 전세의 애국자이시고 애민애국정신의 최고체현자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통일대장인 6. 15 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신념의 표대를 받아안게 되었다. 그날의 광경은 오늘날도 남조선에서 위인칭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통일련대의 한 성원은 «태양의 빛을 떠나 우주의 밝음과 세상사물의 생초를 생각할수 없듯이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떠나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모두는 이것을 명심하고 김정일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야 한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이남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조국통일을 확신하고 부강번영하는 패일을 내다보았다.》라고 략판을 표시한 서울에 사는 한 종교인과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온 겨레가 나이갈 길을 한히 밝혀주고계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심장에 새기게 되었다.》,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이다. 그분께서 계시는 분들의 어둠이 가시되고 통일의 려명이 밝아오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민족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나아가 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라고 저지르며 격정을 리친 부산의 대학교수들의 가슴속에도 넘쳐나고있다.

어느 한 모임에서 한 통일운동단체장은 《내의통일시대의 위대한 방화책동으로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끈기있게 내디딜수 있는 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민족대단결리념과 그 구현인 6. 15 공동선언이 투쟁의 앞길에 활짝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자주통일시대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에 통일이됨은 꼭 실현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있으며 또 남북공동선언의 리행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이처럼 뜨겁고 열렬하며 확고부동하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 단체들 《천안》 호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지지

이탈리아 헤르모주제사상, 선군사상연구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탈리아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협회 평년단 진상공개장 (1)을 지지하여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단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공개장 (1)을 발표하였다.

공개장은 이번 사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쟁취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꾸민 모략극, 남조선당국이라는 세상에 결코 없었다.

《천안》호침몰사건후 세상사람들은 온갖 의혹으로 가득찬 이 사건의 진상이 언제까지 밝혀지지 되리라고 믿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킴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제제의 《정당성》을 함리화해보려고 꾀하였다.

이탈리아 헤르모주제사상, 선군사상연구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탈리아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단 진상공개장 (1)을 지지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여론전과 공화국을 지지하는 반대성명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에스빠나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단 진상공개장 (1)을 지지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단 발표한 진상공개장은 남조선통치책들과 그 상변인 미국이 내놓은 《천안》호침몰사건이 완전한 남조이며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남조선당국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는 반역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파쇼당권은 그 무슨 국제회의의 《단결》을 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수많은 경찰과 군인력을 동원하여 살인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열마진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는 그 무슨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민간인불법살해를 부추기고 전보단체성원들에 대한 강제수색, 구속수동을 강행한데 이어 국제회의를 계기로 인민의 도수를 현충 강화하고있는것은 즉시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각계 인민들은 집권세력의 강행을 단죄규탄하는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리면서 그에 항거해나가고있다.

6. 15 공동선언리행은 청년학생들의 항쟁리행은 지난 3월 모든 민주세력이 당국의 탄압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나선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호소문에 힘입어 《특별법》제정에 숨겨진 음흉한 내막을 파헤치고 이것은

남조선의 검찰의 남부공통선언 남부공통선언에 대한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검찰이 단체집행위원 장 문경환을 《보안법》에 걸어서 구속하고 가족과의 면담마저도 가로막아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문경환이 단식과 침묵으로

민중의 분노, 나오는 투쟁의 불길

사실상 민중을 상대로 선포한 계몽령이나 다름없고 구탄과 구박이다. 이이 단체는 문제론자로서 말미암아 무참한 유린된 사회의 민주화실현과 날로 커지는 민중의 고통을 폭로하면서 전민중이 대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말고 리행하기 위한 민주투쟁으로 맞서싸우라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인권단체성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며칠전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특별법》제정이 남조선사회의 인권유린행위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당국의 파쇼적당면성을 준벌히 단죄규탄하고 신철참가자들은 당국이 사람들마주 의심해 버리는대로 잡아가도록 등 살생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탄압수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10일에는 남조선인민들이 국제회의에 앞서 발표한

당국의 이른바 《일국금지자명단》에 대하여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언론들은 그 무슨 《안건》을 구미로 세계각국에 알리려는 남조선당국의 일부인 남조선인들이 당국의 분별없는 처사를 비난하고 반 《정부》기치를 번시민단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편 민주로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은 국제회의만을 며칠전 서울에서 진행된 안중에도 없이 탄압에 탄압을 하는 당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일제히 전개하였다. 지난 6일 민주로총 5개 지역 분부와 12곳 조합원 등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문제해결, 《로동법》전면개정을 위한 반 《정부》투쟁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국제회의는 《합법적인 노동자투쟁방안》을 공리하는 가진자들의 잔치》라고 폭로하면서 당국의 위악음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남조선호전광들 복침전쟁연습계획 공표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북침전쟁연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조선군 제 20기회보보병사단소속 「화방」부대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전술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이들은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병력과 자동차 등 부대내의 모든 침략무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장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하고 가평리에서 북침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합동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보이라가 멋으면 생산이 증대된다!
—오직 이 한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뚝뚝뚝이였다. 결성적으로 밟아 가고 새날이 밝았다. 몸은 가능할수 없으나 나뉠것만은 없었던 희망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베푼에 있는 무더기비속에서 자기 공장의 전 초전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시각 비웃적장의 어느 한 기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있다.

«아바이, 몸도 돌보면서 좀 쉬워달라 부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나도 경영업전진을 지켜서 전후원이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곧 우리 전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내 걱정은 말고 넘나 공격해 보세!»
이것은 비단 20여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박경호 동무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야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 힘으로 새 고지를 점령할시다!»
그날부터 공정의 곳곳마다에서는 열기면 기술로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공정을 돌아다니며 로라직장을 설치한 배양기를 만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서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합동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보이라가 멋으면 생산이 증대된다!
—오직 이 한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뚝뚝뚝이였다. 결성적으로 밟아 가고 새날이 밝았다. 몸은 가능할수 없으나 나뉠것만은 없었던 희망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베푼에 있는 무더기비속에서 자기 공장의 전 초전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시각 비웃적장의 어느 한 기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있다.

«아바이, 몸도 돌보면서 좀 쉬워달라 부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나도 경영업전진을 지켜서 전후원이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곧 우리 전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내 걱정은 말고 넘나 공격해 보세!»
이것은 비단 20여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박경호 동무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야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 힘으로 새 고지를 점령할시다!»
그날부터 공정의 곳곳마다에서는 열기면 기술로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공정을 돌아다니며 로라직장을 설치한 배양기를 만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서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합동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보이라가 멋으면 생산이 증대된다!
—오직 이 한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뚝뚝뚝이였다. 결성적으로 밟아 가고 새날이 밝았다. 몸은 가능할수 없으나 나뉠것만은 없었던 희망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베푼에 있는 무더기비속에서 자기 공장의 전 초전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시각 비웃적장의 어느 한 기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있다.

«아바이, 몸도 돌보면서 좀 쉬워달라 부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나도 경영업전진을 지켜서 전후원이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곧 우리 전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내 걱정은 말고 넘나 공격해 보세!»
이것은 비단 20여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박경호 동무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야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 힘으로 새 고지를 점령할시다!»
그날부터 공정의 곳곳마다에서는 열기면 기술로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공정을 돌아다니며 로라직장을 설치한 배양기를 만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서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합동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보이라가 멋으면 생산이 증대된다!
—오직 이 한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뚝뚝뚝이였다. 결성적으로 밟아 가고 새날이 밝았다. 몸은 가능할수 없으나 나뉠것만은 없었던 희망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베푼에 있는 무더기비속에서 자기 공장의 전 초전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시각 비웃적장의 어느 한 기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있다.

«아바이, 몸도 돌보면서 좀 쉬워달라 부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나도 경영업전진을 지켜서 전후원이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곧 우리 전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내 걱정은 말고 넘나 공격해 보세!»
이것은 비단 20여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박경호 동무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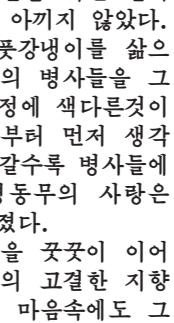
«우리에게야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 힘으로 새 고지를 점령할시다!»
그날부터 공정의 곳곳마다에서는 열기면 기술로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공정을 돌아다니며 로라직장을 설치한 배양기를 만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서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합동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보이라가 멋으면 생산이 증대된다!
—오직 이 한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뚝뚝뚝이였다. 결성적으로 밟아 가고 새날이 밝았다. 몸은 가능할수 없으나 나뉠것만은 없었던 희망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잃었다. 그들은 이렇게 베푼에 있는 무더기비속에서 자기 공장의 전 초전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 시각 비웃적장의 어느 한 기대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있다.

«아바이, 몸도 돌보면서 좀 쉬워달라 부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나도 경영업전진을 지켜서 전후원이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곧 우리 전후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내 걱정은 말고 넘나 공격해 보세!»
이것은 비단 20여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박경호 동무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야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 힘으로 새 고지를 점령할시다!»
그날부터 공정의 곳곳마다에서는 열기면 기술로론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공정을 돌아다니며 로라직장을 설치한 배양기를 만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서는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